

미래산업 포진 4개 산업단지 투자유치 지름길 뚫렸다

광주경제자유구역 지정 효과·전망
내년 1월 '경제자유구역청' 개청
각종 규제 특례에 세금 혜택
2027년까지 1조6279억 유치
미래전략산업 육성 기반 완성

광주경제자유구역 지정은 광주의 미래 전략산업들이 포진된 4개의 산업단지가 모두 포함했다는 데 의미가 크다. 광주시가 민선 7기들어 역점을 두고 추진해온 4차 산업의 핵심인 인공지능(AI)·미래형 자동차, 스마트에너지 산업에 대한 국내외 투자유치에 일대 전기가 마련됐기 때문이다. 특히 국내외 활발한 투자유치를 통해 관련 산업의 발전이 기대되면서 일자리 창출과 지역 경제 활성화에도 탄력이 붙을 것으로 보인다.

◇광주 미래전략산업 육성 청신호...각 지구별 개발계획-광주경제자유구역은 '상생과 AI기반 융복합 신산업 허브'를 비전으로 설정했다. 광주시는 노사상생 광주형 일자리 확대, AI 기반 신산업창출, 쇠락하는 기존 주력산업과 AI융복합을 통해 활력을 불어 넣어 광주만의 차별화된 경제자유구역으로 만들어갈 계획이다.

각 지구별 주요 개발계획에 따르면 미래형자동차 산업지구(빛그린산단)는 친환경

경 자동차 메카가 될 전망이다. 광주형일자리 사업인 광주글로벌모터스와 함께 인공지능 기술을 활용한 자율주행 자동차 및 전장분야 기술 고도화를 이뤘다. 친환경차 부품인센터 등도 설립된다. 스마트에너지산업 I·II지구(남구 에너지밸리 일 반산단, 남구 도시첨단 국가산단)는 에너지 ICT 융복합 분야를 중심으로 AI 기술을 활용-연계해 에너지 효율 향상과 스마트그리드 분야를 특화한 스마트 융복합 에너지 신산업 육성 지구로 거듭난다.

인공지능 융복합지구(북구-광산구 첨단 3지구)는 핵심 산업별 인공지능 기술융합을 통해 미래 핵심 산업인 자동차-에너지-생체의료용 소재부품 산업에 빅데이터 기술과 관리 플랫폼 구축 기술 등을 융합해 헬스케어 분야를 중점 육성하게 된다.

광주시는 미래형자동차 산업지구와 스마트에너지 산업지구 I·II는 광주글로벌모터스와 한전 등과 연계된 관련 기업들의 투자유치를 이끌어 낼 계획이다.

AI 융복합지구는 실리밸리와 기술협력을 강화하고 세계적인 연구소 등을 유치해 광주지역 중소기업 및 스타트업의 새로운 기술과 제품 개발연구를 지원할 방침이다.

◇향후 계획 및 기대효과-광주시는 앞으로 행정안전부와 협의를 통해 지구·정원 승인을 받은 뒤 조례·규칙을 제(개)정하는 등 사전 행정절차를 진행해 내년 1월 '광주경



이용섭 광주시장이 3일 오전 세종시 산업통상자원부 대회의실에서 열린 경제자유구역 공식지정 관련 경제자유구역위원회 회의에 참석해 인사말을 하고 있다.

제자유구역청' 개청을 목표로 하고 있다. 광주경제자유구역청은 각 산업별 맞춤형 투자유치 조직과 전문인력으로 구성됨에 따라 국내외 기업유치, 일자리 창출 등에서 큰 효과를 거둘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광주경제자유구역청을 중심으로 4개 지구 및 인접 혁신기관 집적화와 유기적 연계를 통한 산·학·연 혁신 생태계를 구

축해 광주 투자유치의 새로운 전환점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 광주시는 경제자유구역 지정을 계기로 오는 2027년까지 총 1조 6279억원을 유치할 계획이다.

◇투자유치 지름길 뚫렸다-경제자유구역으로 지정되면 노동·경영 관련 규제 특례가 적용되고, 투자규모에 따라 지방세, 관세 등이 감면되는 다양한 인센티브가 제

공된다. 취득세(지방세)는 자치단체 조례에 따라 최대 15년간 100% 감면, 재산세(지방세)도 조례에 따라 감면 가능하다. 따라서 국내외 기업들의 투자가 활발해질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경제자유구역청 운영비와 투자유치비, 연구개발비와 경제자유구역 진입도로, 상하수도, 폐기물 처리시설 등의 기반

시설도 관련 국비를 지원받을 수 있다. 이용섭 시장은 "광주경제자유구역 지정으로 미래 전략산업 집중 육성을 통해 4차 산업혁명을 선도한다는 광주의 꿈이 한층 무르익게 됐다"면서 "만드시 그 꿈을 실현시켜 떠나는 광주에서 돌아오는 광주, 찾아오는 광주로 만들어가겠다"고 말했다.

/최권일 기자 cki@kwangju.co.kr

“금쪽같은 내 자식들 마스크 잘 쓰고 다니라”



김은영의
'그림 생각'

(315)당부

옛것처럼 다녀온 서울의 모습은 광주의 풍경과는 사뭇 달랐다. 어느 때와 달리 어디를 가도 한산한 까닭에 택시타기도 수월했고, 평일에도 당연했던 교통 체증 없는 서울 거리가 낯설었다. 광주에서 그랬듯이 거리를 다니면서 마스크를 쓰지 않았다가 외계인처럼 바라보는 시선이 따가워 서둘러 마스크를 꺼내야 했다.

서울에 있는 딸에게는 마스크를 꼭 챙기라고 당부해놓고 스스로는 건성이었다. 마스크는 우리 일상에서 생존의 필수품이건만 '청정 지역'에서 살고 있는 자부심이 한순간 망심하게 했던 것 같다.

김병하 작가(1969~)의 '어머니의 신신당부' (2020년작)는 마스크를 쓰고 푸성귀를 다듬던 어머니가 자식걱정에 잠시 손을 멈추고 있는 모습을 그린 그림이다. 김병하작가는 광주시립미술관에서 지난 5월 한 달 동안 코로나19로 힘들어하는 사람들에게 온라인 전시로 희망의 메시지를 전하는 '코로나 19 극복을 위한 광주미술인 희망 릴레이 챌린지' 프로젝트에 참여했던 작가로 이번 전시에서 자식을 향해 '신신당부' 하는 고향의 어머니를 담았다.

코로나로 가족을 걱정하고 안부를 묻는 것이 그 어느 때보다 애뜻한 시절. 작가는 "고향에 계신 어머니의 마음이 아마도 모든 어른의 마음과 같을 것이어서 그 마음을 표현했다"고 말한다. "금쪽같은 내 자식들이 마스크 잘 쓰고 다니라"는 어머니의 응원이 그림 속 마스크를 넘어 메아리쳐 온다.

김병하작가는 80년대 전남대 미술교 육과를 나와 거리와 캠퍼스 등 민중미술 현장에서 걸개그림과 플래카드 등의 작



김병하 작 '어머니의 신신당부'

업을 활발하게 해오다가 이후 일러스트레이터로 시작하여 현재는 그림책 작가로 명성이 높다. '고라니 텃밭' '보리밭은 재미있다' '보리타작하는 날' 등 어린이는 물론 어른들도 좋아하는 그림책에 그림을 그려오면서 사람과 자연이 어우러져 살아가는 소중한 이야기를 전해주고 있다.

<광주시립미술관학예관·미술사박사>

민주, 5·18 진상규명 특별법·왜곡 처벌법 당론 추진 광주 국회의원들 역할 분담 6개 관련법안 대표발의

예우 이용빈, 보상 민형배 의원
국가장법 조오섭 의원이 맡아

더불어민주당이 5·18 민주화운동 왜곡 처벌법과 진상규명 특별법 개정안을 당론으로 추진하는데 이어 광주 국회의원들도 역할 분담을 통해 8개의 5·18 관련 법안을 대표발의의 하기로 했다.

송갑석 대변인은 3일 최고위원회의 직후 브리핑에서 "5·18 민주화운동 왜곡처벌법과 진상규명 특별법 개정안은 정책위원회 검토를 거쳐 의원총회에서 의결되면 당론 법안으로 채택된다"고 밝혔다.

5·18 왜곡처벌법은 5·18민주화운동에 대한 비방과 왜곡, 날조, 허위사실 유포 등을 처벌하는 내용이다.

이 법안은 20대 국회 때 당론 발의됐으나 인기 만료로 폐기돼 이번에 재추진 되는 것이다. 5·18 진상규명 특별법 개

정안은 공소시효를 연장하고, 진상조사 위예 강제조사권을 부여하는 것이 핵심이다.

앞서 이회찬 대표는 전날 의원총회에서 소속 의원들을 향해 "잘못된 현대사에서 왜곡된 것들을 하나씩 바로잡아가는 막중한 책무가 여러분에게 있다"며 역사 바로잡기 필요성을 강조했다.

광주 국회의원들도 역할 분담을 통해 5·18 관련 8개 법안 발의에 나선다. 현재 민주당이 당론 법안으로 추진하고 있는 5·18 왜곡처벌법은 이형석(광주 북구) 의원이 대표 발의하고, 5·18 진상규명 특별법 일부 개정법안은 추후 대표발의 의원을 정할 방침이다. 남은 6개 법안은 개별의원 대표발의로 추진된다.

5·18 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안(5·18운동 공명단체화법)은 이용빈(광산) 의원이 대표 발의하고, 5·18 민주화운동 관련자 보상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5·18기념재단 재정 지원 등)은 민형배(광산) 의원이 맡아서 발의한다.

또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5·18진압 중 사망 및 상이자의 보훈보상 제외 추진)은 이병훈(동남) 의원이 대표 발의하고, 국가장법 일부개정안(전두환 국가장 배제법)은 조오섭(북구) 의원이 맡는다.

이 밖에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5·18 진압공로로 지정된 유공자들의 자격 제외)과 국립묘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5·18 진압공로 유공자 박탈자에 대한 국립묘지 안장 제외)은 윤영덕(동남) 의원이 대표 발의한다. 이 2개의 법안은 1개 법안의 통과 전제로 의결해야 하기 때문에 윤 의원이 함께 대표발의 할 계획 이다.

/오광록 기자 kroh@kwangju.co.kr

모던 슬라브옥상 칼라강판 지붕공사 및 스틸방수

옥상지붕공사

옥탑이 없는 평 슬라브
주택 및 한옥 등은 칼라강판 지붕공사

옥상 스틸방수

갈라지고 물이 새는 옥상바닥
겨울의 차가운 냉기!
여름의 뜨거운 열기!

방수와 단열 한번에 해결!

옥상지붕공사 및 스틸방수 무료견적

디자인 등록 제30-0934833호
제30-0949873호

모던건설

(트윈스틸)

시공문의 062)531-3530 H.010-9229-3530

신세계안과 의/학/상/식 **톡톡**

눈 앞에 날파리가 날아 다녀요

〈비문증 원인과 해결법〉

◆ 비문증이란?

눈 속 내부의 80%는 투명한 젤과 같은 유리체로 채워져 있습니다. 나이가 들면서 젤 성분이 물로 변하게 되는 유리체 액화가 진행하면 투명한 유리체 안에 혼탁이 생기게 됩니다. 이 혼탁은 밝은 곳에서 그림자를 생기게 해 마치 모기나 날파리가 날아다니는 것처럼 보이게 됩니다. 이를 비문증 또는 날파리증이라 부릅니다.

◆ 증상

작은 물체가 한 개 또는 여러 개일 수 있으며 형태도 다양하게 나타납니다. 파리나 모기 같은 곤충 모양, 점 모양, 동그란 모양, 가지런이 모양, 실오라기 같은 줄 모양 등 다양한 형태로 보이며 수시로 여러 형태로 변할 수 있습니다. 때로는 눈을 감아도 보일 수 있으며 보고자 하는 방향에 따라다니면서 보이는데 맑은 하늘이나 하얀 벽, 하얀 종이를 배경으로 보았을 때 대비가 잘 되기 때문에 더욱 뚜렷하게 보입니다.

◆ 치료방법

눈앞에서 어른거려 불편을 느낄 때는 잠시 쉬어 쳐다봤다가 다시 주시하면 일시적으로 시선에서 없어질 수 있습니다. 일부는 계속 보일 수도 있지만 시간이 지나면 대개는 열어지고 적응이 됩니다. 떠다니는 물체가 숫자나 크기에 있어서 여러 달 동안 변화가 없다면 이 자체로는 수술하지 않는 것이 원칙입니다. 그러나 갑자기 떠다니는 물체가 많아질 때, 또는 눈앞에 무엇이 가리는 것 같은 증상이 느껴질 때는 반드시 안과 의사의 진찰을 받아야 합니다. 특히 비문증과 같은 증상을 보이지만 실제로는 심각한 망막질환인 경우가 많고, 이런 경우 발견 시기에 따라 시력의 유지 정도가 결정되기 때문에 조속한 진단이 매우 중요합니다.

신세계백화점 대각선 눈모양빌딩 ● 신세계안과 1566-9988